

투데이 칼럼

북한의 해킹 실태

갈수록 진화하는 북한 해킹 그룹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최근 한국원자력 연구원을 비롯한 국가 핵심 연구시설들이 북한과 연계된 해킹조직에 공격을 받았다고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했다.

북한은 대외 선전매체들을 동원해 황당무계한 모략이라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사실 북한의 해킹 공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격 거점들이 주로 해외에 있어 추적을 피해 가고 있다.

국내 유일의 원자력 종합연구개발 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2일 동안 해킹 공격에 노출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방산업체도 북한과 연계된 해킹조직의 공격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국가의 핵심 기관 시설이 공격당한 사건이다. 이번 해킹 공격의 배후에는 북한 연계 그룹 김수키가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 기관의 분석이다. 이번에 원자력연구원을 해킹한 김수키는 북한 해킹 조직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그룹이다.

이들은 한국 정부기관이나 정치인, 탈북민 정보를 주로 해킹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14년, 원전 설계도를 비롯한 주요 기밀 자료가 해킹된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의 주범도 김수키로 잠정 결론이 나왔다.

이번 범행은 금전보다는 사회적



정복구

논설위원 · 통일교육원

불안과 국민적 불안 심리 이야기를 노리는 북한 해커조직의 소행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해킹 그룹은 각자 특화된 공격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자루스'라는 조직은 주로 해외 금융기관을 해킹해 자금을 빼내고 있다. 2016년 라자루스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은행에 개설한 계좌를 해킹했다.

당시 탈취한 금액만 8,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3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북한 해킹 그룹 '안다리엘'은 국방, 방위산업체 등의 정보 수집 업무가 주특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등 금전을 노린 해킹 업무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2월, 세계 각국의 은행과 기업에서 13억 달러 이상의 현금과 가상 화폐를 빼돌린 혐의로 안다리엘 소속 해커 3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CIA 보고에 따르면 현재 활동 중인 북한 해커는 약 7천 명 정도로 추산된다. 세계 최대 사이버 전력을 자랑하는 미국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규모다. 여기엔 북한이 1980년대부터 실시한 사이버 인력 양성이 큰 영향을 미쳤다.

북한은 사이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과학 영재들을 선발해 평양제1중학교와 금성학원 등에서 교육해 왔다.

과학 영재들은 김책공업대학과 평양이과대학, 평양과학기술대학 등이공계 대학으로 진학했다.

대학마다 컴퓨터 소조라는 게 있다. 세 번 정도 시험 봐서 5명 정도를 뽑는 곳이다. 그들을 공부시켜서 국내 경연에 참여시킨다. 3등까지 새 팀을 다시 공부시켜1년 후에 국제 경연에 보낸다.

이러한 교육성과는 국제대회 수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5월 포르투갈에서 열린 국제 대학생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김책공업대 학생팀이 은메달을 수상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양성된 북한의 컴퓨터 수재들은 아주 은밀하게 전문 해커로 활동하고 있다. 같은 학교, 같은 과 졸업생들도 누가 어느 나라에 파견돼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다.

해킹 활동은 북한 내부에서조차 알려고 해서 안 되는 비밀인 것이다. 또 북한 해킹 그룹들은 거점을 해외에 두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회사들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했다.

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이어 지난해 서울대병원에도 사이버 공격을 가해 환자 7천여 명의 개인 정보를 빼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부분 기관과 기업들의 온라인 업무가 늘어나는 가운데 북한의 해킹 공격은 더욱 집요해지고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0년간 러시아, 중국, 이란과 더불어 '사이버 불량 국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부정한 수단으로 외화를 획득하고 국가 보안 정보까지 탈취하는 북한의 해킹 공격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국가적 대응 시스템 마련과 국가 사이버 안보법 제정이 시급하다.

사설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고창 갯벌을 비롯한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고창 갯벌과 전남 신안, 보성, 순천, 충남 서천 갯벌 등 서남해안의 대표 갯벌 5곳을 묶은 '한국의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것이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우리나라 갯벌이 생물 다양성과 함께 멸종 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중요하며,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했다. 특히 반려 권고를 뒤엎고, 재도전에 성공해 의미가 더욱 크다.

갯벌에는 멸종 위기 철새 27종을 비롯해 2천백여 종의 진귀한 생물종이 살아가고 있다. 갯벌은 정화작용을 하는 철새들의 쉼터다. 생물 다양성의 상징으로 뒤늦게 생태 관광지로 인정받았다.

해양 생태계가 육상보다 온실가스 흡수 속도가 최대 50배나 빠르다고 한다.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인 '블루 카본'(blue carbon) 연구가 절실해진 이유다.

기후 변화가 기후 재앙으로 다가오자 비로소 그 가치를 깨우친 것이다.

이제 우리의 중요한 습지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통해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22개의 국가를 방문하는 수백만 마리의 이동성 물새들에게도 매우 유익할 것이다.

지난 5월 유네스코 자문?심사 기구는 한국의 갯벌을 심사한 끝에 '반려'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나라가 '반려' 권고를 받고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 등재에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국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로 우리나라 갯벌의 가치를 부각시키며 적극적으로 설득한 전략이 이뤄낸 쾌거이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복합유산 세 가지로 나뉜다. 한국의 갯벌은 자연유산으로 제주의 화산섬과 용암 동굴을 포함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전체 유산으로는 국내 15번째로 등재됐다. 이번 소식은 올림픽 메달만큼이나 값진 소식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해외 교민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멈춰선 동남아 대도시들이 멈춰섰다. 코로나19 피해가 인도에서 동남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우리 교민들의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한국인이 유족 등의 없이 화장된 소식까지 알려져 외교부는 교민 보호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호치민시는 감염이 의심되면 최대 3주까지 마을이나 아파트를 통째로 봉쇄한다. 에스텔라하이츠 아파트에 우리 교민 40여 명이 격리되는 등 1천여 명의 교민들이 집에 갇혀 있다.

도심 쇼핑들은 모두 문을 닫았다. 음식 배달만 일부 허용되고, 시민들의 외출도 사실상 통제되면서, 식료품 하나 구입하는 게 쉽지 않다.

호치민에서만 현재 19명의 교민이 확진돼 치료를 받고 있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 역시 장례 시설로 이어지는 영구차 행렬

이 계속되고 있다. 확진률이 무려 40%를 넘으면서 여기저기서 산소통을 찾는 아쉬움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교민 3명이 숨진 가운데, 증세가 심한 교민 6명이 2억 원에 달하는 에어 앰블런스를 이용해 귀국을 준비 중이다.

코로나 청정 국가로 불리던 베트남의 최근 1일 확진자 수가 3000명이 넘는 등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선 일일 확진자가 사흘 연속 5만 명대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인도에서 벌어졌던 '산소통 대란'이 인도네시아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특히 지난 한 달 새 한인 감염자가 500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사망자도 5명에 달하는 등 심각하다. 밤 9시 통행금지까지 시행중이지만, 입원실이 동남만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동남아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 수는 약 35만 명이다. 베트남에 17만 명, 필리핀 8만 명, 인도네시아 2만 명이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브라질 남부 한파, 나뭇가지 매달린 고드름



지난 28일 새벽(현지시간) 브라질 상 호아퀼에 강추위가 몰아쳐 나뭇가지에 고드름이 매달려 있다. 이날 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면서 브라질 남부에 눈이 내리는 등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났다.

고속도로 앞아 시위하는 과테말라 원주민 시위대



과테말라 원주민 지도자들이 알레한드로 잠파테이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하며 총파업을 촉구해 지난 29일(현지시간) 토토니카판에서 원주민 시위대가 인터아메리카 고속도로를 봉쇄하고 있다. 이번 시위는 마리아 콘수엘로 포라스 검찰총장이 반부패에 앞장섰던 후안 프란시스코 산도발 검사를 해임한 것에 반발해 시작됐으며 시위대는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